

-(Jia-Rong LOW)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아롱이라고 하고요.

저는 브이피를 맡고 있고 ICANN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KrIGF에 초대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ICANN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주제이지만 ICANN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멀티스тей크홀더로서 인터넷거버넌스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 반 정도로 세션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도 아마 변호사님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와도 몇 번 뵈었던 친분이 있으신 변호사님이요 한국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실까요?

-(박수)

그리고 멀리 싱가포르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날아오신 브라이언 탠 님이 계시고요.

법률적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저의 아내가 변호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된 법률 자문 그리고 법률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고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패널 분은 김예슬 님이십니다.

ICANN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패널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될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오늘 주되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모두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 모이셨는데 진짜 진정한 인터넷거버넌스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싶고요.

이것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거버넌스라는 말을 논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곁들여서 나오는 단어가 멀티스тей크홀더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정의하는 멀티스тей크홀더와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멀티스тей크홀더 답변에 상이함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거버넌스라고 하는 거하고 멀티스тей크홀더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 답변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각기 세 분의 패널께서 윤 변호사님께서서는 한국에서의 인터넷거버넌스와 멀티스태이크홀더에 대한 생각, 브라이언께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상황, 예슬 님은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유해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ICANN에서 정의하는 인터넷거버넌스는 사실 굉장히 좁은 영역만 포함하고 있어요.

보통 인터넷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뭘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3G망, 아니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특정앱이나 통신망을 생각하시겠죠.

인터넷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의 연결 아니면 내 장비를 다른 장비와 연결하는 것이 인터넷인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아이덴티파이가 필요합니다.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같은 망에 있어야 되니까요.

ip주소가 필요할 거고요.

ip주소는 다 숫자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가 힘들니까 도메인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도메인인 페이스북 닷컴이라든지 구글 닷컴이 도메인인 거고요.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ietf에서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거고요.

RIR에서 지역을 설정하고요.

ip주소를 할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ICANN에서는 도메인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에 따라서 멀티스태이크홀더 모델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멀티스태이크홀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크로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이분이 처음으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대학원을 졸업한 팀 멤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학문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신기술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고요.

이분이 RSC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멀티스태이크홀더의 기반이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멀티스태이크홀더 모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인터넷거버넌스라는 데 안에서 정통적으로 멀티스태이크홀더의 역할은 작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의 사용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졌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멀티스태이크홀더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터넷거버넌스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게 바로 오늘 다뤄볼 질문 중에 하나고요.

윤복남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남)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웃음)

영어로 슬라이드를 써놓고 한국말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에서의 멀티스태이크홀더를 논의한다는 게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ICANN을 위주로 해서 진행해왔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독특한 역사를 우리식으로 인식해서 국내에서의 멀티스태이크홀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에서는 현재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행사를 주최한 KIGA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전의 역사를 말하자면 길지만 과감히 생략하고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로 해서요. 앞으로의 한국에서 인터넷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모델을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가 말하자면 의사결정 자체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표되어 있는 정부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매니지먼트하는, 실제로 위임을 받아서 KIGA가 운영하는 게 현황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자문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컨설팅 하는 기구로써 두 개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법상 기구로써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법에 나와 있는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붉은 색 글씨로 쓴 한국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라고 하는 이 KIGA는요. 법에서 정해진 기구는 아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2004년에 만들어진 인터넷주소작업법입니다.

그 전에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04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 정부가 관리권 자체를 전체를 통할하게 된 그런 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저는 글로벌 인터넷 시대로 봤을 때 독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년 정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의 결과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재정이 된 걸로 귀결이 되었고요.

그 결과로 정부가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특징인데 자발적인 영역은 많이 축소되는 그러한 것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거쳤는데요.

2014년 이후에 KIGA가 나오게 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에 있지 않은 기구에서 뭔가 나름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밑에서 올리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사실은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탑다운 스타일을 지양하고요.

좀 더 바텀업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는 쪽으로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이해관계자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사회나 학계나 사업자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공공영역이나 정부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KIGA 인사말을 할 때 정부 관여자도 나도 여러 참여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동만 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원하는 건데요.

현재 법보다는 달라진 표현이라고 칭찬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KIGA 자체가 벌써 4~5년 정도를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KrIGF 여러 번 개최해 온 걸로 저희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과제라고 할까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터넷 사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참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바텀업을 하려면 정말 바텀에 있는 여러 인터넷 사용자들과 비즈니스 섹터에서의 사업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고, 말하자면 표현되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들을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하나 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관계, 이게 서로 사실은 아웃리치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유저들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참여의식을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게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을 때 인터넷 사용자들이나 사업자들은 말하자면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에 의해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과는 다른 국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한 가지 법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체를 국내 한 내셔널 레벨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콘텐츠 자체가 주소정책심의위원회 방식의 것보다는 조금 더 법제화 시켜서 넓은 방식으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싶다는 게 하나의 방침이고요.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현행법 체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즉 양분되어 있는, 법이 따로 있고 멀티스테이크홀더에 의한 접근이 따로 있는 지금의 체계보다는 나은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1차로 바라고 있습니다.

설령 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바텀업 프로세스를 확산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Jia-Rong LOW) :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흥미롭게 들렸던 것들이 KIGA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들이 힘들다는 게 가장 좀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흥미롭게 들렸냐면요.

다음으로 발표할 패널리스트 브라이언이 싱가포르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싱가포르에서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를 브라이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Bryan TAN) : 오늘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저는 싱가포르의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우롱이 소개해 준 거와 같이 저는 유복남 변호사님처럼 저도 역시 싱가포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조인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의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공유해보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스테이크 홀더 오브 더 인터넷이라는 건데요.

스테이크홀더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인터넷 소사이어티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2012년에 시작했을 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역사가 되지는 않아요.

NGO고요.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NG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인터넷 소사이어티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게 이 소사이어티를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넷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교육 세션도 가졌었고요.

IoT와 같은 기술적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스탠다드 같은 거를 어떻게 들여와야 될지, 이런 기술적인 교육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심각한 논쟁거리나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뉴스,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는 거짓기사와 관련된 것.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요.

인터넷과 문화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특정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도 생기는데요.

어반 플래닝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러한 디스럽션 때문에 어떤 것이 직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도 이야기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  
다.

IoT와 사이버 보안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를 해보기도 했어요.

인터넷 그룹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바 있고요.

공공적인 영역에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법제화를 하기 전에 공공의 의견을 많이 듣기를 원했었던거예요.

법제화되기 전에 인터넷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제출을 하  
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라든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컨설팅을 했던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순서가 먼저 토크 세션을 가진 후에 법제화가 되기 전에 이런 컨  
설팅을 하는 것이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런 것들은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는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하는지요.

프레스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프  
레스의 도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쪽에서 의견들, 오피니언에 관한 기사들을 작성하고 그것이 발행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을 때는 언론사 프레스에서 먼저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  
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 이런 이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서 저희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의견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인데요.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  
나, 이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인데요.

커뮤니티의 멤버들을 보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룹으로 나뉘보실 수가 있  
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고요.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들이요.

그리고 학회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자 분들.

기술 엔지니어들.

NGO거나 정부 관계자들.

일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급자들이요.

이 그룹들과 저희가 어떤 거를 했냐면요.

뉴스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보면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 정부에서 뉴스 플랫폼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줘야 된다는 안건이 나왔었어요.

뉴스가 나가고 나서 걱정이 많았던 게 혹시 이렇게 라이선스를 줘야 된다는 거는 뉴스를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한 거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패널 중에 정부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패널들을 초청했구요.

이 법제, 법률로 재정되는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제정이 됐고요.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만족을 했던 건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법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 자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구요.

일반 사용자에게 대해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싱가포르에서는 4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법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요.

그 법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 선거가 있을 때쯤 해서 이런 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어떤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제가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선거가 일어날 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적시적소에 블로거들과 이런 활동을 하는 바람에 여지까지 그런 일로 인해서 감옥을 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독특한데요.

소셜 미디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논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ngo다 보니까 자금이 많은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을 스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ngo이기는 하지만 학문적인 이런 분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후원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특정 영화를 본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를 고소하겠다는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되었던 게, 당신들이 이거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몇 천 달러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었고요.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이런 악행에 관해서 협박을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했던 액션 중에 하나는 변호사들한테 이런 거를 중단해달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했구요.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러한 편지를 변호사한테 받게 된다면 어떤 식의 경로를 통해서 뭔가 상담을 받거나 어떤 식의 액션을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트리밍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그런 장을 마련한 거죠.

변호사들은 물론 본인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시겠지만요.

어쨌든 저희의 인터넷 소사이어티 액션 덕분에 그런 걸로 안건을 만드는 변호인들이 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영화를 일반 사용자,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이게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거를 갖고 시비를 걸어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뭔가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고요.

어떤 기술 문서로 이런 게 있었음을 알 수는 있었어요.

호주 법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 없이 그거를 해결하고자 기술적인 문서를 인터넷 소사이어티 싱가포르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도움으로 호주에서의 법률적인 문제가 더 이상 안 좋게 진행이 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구요.

어떤 게 잘 실행이 됐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소사이어티 안에도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구요.



싱가포르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교수진들, 변호사들, 엔지니어들, 정부 일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거를 발표하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보여주냐도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는데요.

인터넷 유저를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찾기가 그 나라별로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터넷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기가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유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발굴해내는 그런 일도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니즈를 알아야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제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야지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제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제공을 해 줄 때 사용자들이 인터넷 소사이어티에 대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쌓아가야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Jia-Rong LOW) : 제가 지금 브라이언이 이야기해준 것에서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누구를 인터넷 사용자로 지칭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잘했던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딱 열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관심자들을 인터넷 사용자로 정의를 한 게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법이 논의가 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꼭 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컨설팅이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출 수가 있는 모델이 되었고요.

싱가포르 원래 굉장히 실용적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소사이어티 역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행동으로 잘 실천을 하시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슬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예슬) : 안녕하세요. 카이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카이스트 소속은 지금은 아니고 그 이후에 APrIGF, 글로벌 IGF, 지금은 이러한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변호사 분들이시고 가족 중에 와이프 분이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저도 집에 법률가가 있고요. (웃음)

그래서 꼭 저는 제 슬라이드 없이 제가 이 행사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면 느꼈던 것들을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지치셔서 좀 많이 조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인터넷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삶에 일부이기기도 하고 우리 삶에 모두를 포함시키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티스태이크홀더라는 모델 자체가 사회 내에서 수직적으로 또한 수평적으로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국가 사이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드릭섹셔널 자체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브라이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 어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 사실 다른 국가의 코트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도 또는 사이언티스트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당연히 법률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 작동하게 되는 반응 자체가 멀티스태이크홀더 모델이 아니고서는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의견 중에 하나였고.

여러 가지 인터넷거버넌스 안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회의에 참가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인터넷거버넌스 자체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 코멘트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콘텐츠 모더레이팅 그룹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그룹이 모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룹 자체 형성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시다보면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종이에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만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이는 곳이 인터넷이고 그래서 멀티스태이크홀더 자체가 가능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스태이크홀더라는 자체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전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회 과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뭔가 재정을 해야만 했던 정책들이 아니라 그런 엔지니어들이 선택하는 그런 정책들이 법률가들이 설정하는 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터넷이 사회 전체에서 수직적이었던 관계를 수평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들리지 않았을 것들이 멀티스태이크홀더를 통해서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터넷이 가져온 파급효과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십으로써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ia-Rong LOW) :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더 넓어졌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적용하기 싫어서 안 했다가보다는 아까 예슬 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된다가나 서면으로밖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희에게 할애된 시간이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30분 동안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질의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앉아계신 분들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 브라이언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주에서 있었던 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해보셨다고. 일반적인 유저가 그런 식으로 법적인 협박이나 소송에 걸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게 됐는지.

-(Bryan TAN) :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또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감시 분석가 역할을 하는 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역할을 설정하고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한 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협박편지를 보낸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그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 분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다라고 털어놓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분하고 분석 전문가께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저희 쪽의 변호사 분하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던 무서운 변호사님이 두 분께서 해결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법정에서 다룬 경험이 있거든요.

법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요.

변호사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금 주고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용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돈 주고 합의할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법률 쪽에서 이런 걸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변호사 분이 계신다가나 그러면 저희가 만든 비디오투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Jia-Rong LOW) : 그 이외에 질문,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전 세계에 돌러보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참석하시는 참석자 분들께서 활발하게 대화하시고 의견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굳이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표출해 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김예슬) : 저도 어쨌든 한국 유저로써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만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터넷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존재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거를 안에서 다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특히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거버넌스를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잘 쉐어를 하고 있으신 거죠.

-(Jia-Rong LOW) : 그러면 제가 질문을 패널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 일단 질문을 드리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는 거를 보고 덧붙여서 의견을 주신다든가 뭔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클루시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멀티스테이크홀더에 대한 모델이 어떤 게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든가 무엇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한 멀티스테이크홀더가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이라든지 리소스라든지 들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저희 패널 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또 계시는 참석자 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복남) : 저는 인터넷거버넌스를 정책에서 많이 접근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바텀업을 지향을 하고는 있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정말 인터넷 유저들이 커뮤니티와의 접촉 속에서 키워오지는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메인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메인에 관련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았을 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도메인이 많은 이슈가 되거나 그 자체로 유저들 사이에서 핫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으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브라이언 발표를 보면서 싱가포르의 활동이 저희로 보자면 어떤 ngo 같은, 대표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KIGA라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 유저들하고. 그런 반성을 해보고요.

저희가 만나는 공간 자체가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KrIGF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의가 오픈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맨날 같은 사람만 보고 같은 멤버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배경은 가지고 있으나 정말 이게 바텀업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에 대해서는 한계를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아까 제 설명에서는 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참여나 정책에서의 기여 쪽이 강조가 됐다면 사실 오늘 이 세션은 저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경계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ngo의 역할이라고 봤던 것을 KIGA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특정한 ngo의 노력이 아니고 유저 스스로도 직접적으로 대변을 하고,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활동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옆에 김예슬 씨가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는 커뮤니티가 발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대정부 활동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ngo의 활동으로만 돼 있었지 이게 전사회적인 논의로 확산되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 세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Jia-Rong LOW) : 감사합니다.

-(Bryan TAN) : 멀티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인터넛거버넌스포럼에 한 번 참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어린이 그룹도 있었고요.

인권단체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여성권리를 주장하시는 여성단체에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lgbt 이런 그룹에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그룹에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의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참석을 하셨다는 그 포럼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는 게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였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인 만큼 각 그룹별로 원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해서 그 원하는 답변들을 다 얻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멀티스테이크홀더를 생각해보면 많은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포럼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표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더 손쉬워졌잖아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다른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인공지능 AI가 좀 더 발전한다면 이 AI가 사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만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룹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뭔가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순간에는 의사결정이 나와야만 하고 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는 하죠.

-(Jia-Rong LOW) : 감사합니다.

-(김예슬) : 우선 아까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받은 맞고 받은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KIGA가 만들어지고 활발한 인터넷거버넌스의 활동들이 시작되다보면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부터가 정말 많은 거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느낀 부분, 제가 회의 참석을 통해서 느낀 것 하나가 한국의 아이씨의 역할이 다른 분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다른 소사이어티 조직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느끼는 아이씨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와 로이어들과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문제들을 토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도 활동이 활발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Jia-Rong LOW) : 참여하신 분 중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플로어) :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Youth Session을 했었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텀업으로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걸리는 긴 시간인데요.

그 긴 시간에서 다양한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빈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한 결과 값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쳐서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Youth 모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성과주의적인 국가인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뭘 했지?라고 했을 때 뻔족한 결과 값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 같이 뭉쳐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튼튼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ia-Rong LOW) :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멀티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멀티스테이크홀더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투명성을 갖고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일을 할 수 있느냐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패널 분들한테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투명성을 갖고 봐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의 책임감이 맞는 책임감인지 생각하시고, 얼마큼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패널 분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Bryan TAN) :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는 투명성을 최대한 투명할 수 있을 만큼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미팅하는 거를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이슈라든지 본인의 얼굴이 노출이 되거나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걸 꺼려하실 때는 음성변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으면 사실 굉장히 작업이 많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소셜 네트워크, SNS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장비를 세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투명성을 갖춘 하나의 좋은 예로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여기서 다루지는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go로써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바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제안이라든지 조언을 해드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복남) : KIGA에서 활동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고 회의참여가 공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참여가 저조하는 거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아주 예민한 쟁점이 발생한다면 그런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 자체를 오픈해놓은 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에서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책임감의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살펴지는데요. KIGA의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멤버들이 고정화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발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맨날 같은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멤버의 확장과 필요할 때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웠던 차에 이번에 Youth Session이 만들어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의 책임감은 두 가지 면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인적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물갈이 되는 면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활동하지 않거나 제대로 스테이크홀더를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배제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한된 인력 때문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동안의 5년간의 과정 중에서 무책임한 인사들이 목소리만 크게 하고 책임을 방지하는 그런 경우를 용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슬) : 방금 말씀해 주신 데서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많이들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께서 KIGA에 조인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KIGA에서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KIGA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주소도 그렇고 새로운 아젠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KIGA에서 계속 새로운 워킹그룹들을 만들어요.

아까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일들을 맡아서 공부를 하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쨌든 법 개정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서요. Youth분들께서 이 기회에 KIGA에 조인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복남) : 좋은 제안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현재 KIGA가 두 달에 한 번 모이고 있고 사실은 활동적인 그룹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소분과, 하나는 케어라이지분과인데 Youth 분과 하나를.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신다면 아주 저희는 환영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열려있으니깐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뭘 할 거냐? 아이돈 노.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신에 정말 개방적이고 한 활동들을 펼쳐나가주시라고 바라겠습니다.

-(김예슬) : 저는 사실 이렇게 IGF를 어떻게 보면 아피가로 시작해서 기대치 않게 글로벌 IGF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독적으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찾고 있던 해답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제가 작년에 IGF에서 같은 주제로 세션을 하나 열었는데 그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IGF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IGF와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IGF가 원래 처음 됐던 것보다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IGF가 연장이 되어서 꾸준히 이런 다이얼로그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ryan TAN) : 인터넷으로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관련된 토크들도 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하시는 분 중에 미디어 강의를 하시는 교수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자 분들도 계시고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대체 뉴스 플랫폼들.

다양한 그룹의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가짜 뉴스에 관한 토크에 참석을 하셨어요.

방이 딱 찰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셨고요.

굉장히 그런 토크라든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멤버 수보다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멤버이기 이전에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와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미팅이 사실은 자정에 진행이 됐는데도 그렇게 활발하게 참석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점이었고요.

또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지 못 했던 그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싱가포르에는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어떤 그룹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허위뉴스다, 잘못된 거다 하는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그룹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NGO로써 활동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의 토크를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뒤에서 이런 거를 뒷받침해서 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이런 토크가 있을 때 참석하셔서 의사를 표출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 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거를 계속 발굴하고 찾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Jia-Rong LOW) :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퀘스천 슬라이드를 다시 폈는데 앉아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답들을 좀 찾으셨기를 바라구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인터넷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활발하게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인터넷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도 한번 계속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한 사이즈로 다 맞는 그런 옷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이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 해야 하는 일인지를 고려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패널 분들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어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이슈들을 다 커버를 할 만큼 플랫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오늘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에 동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멀티스테이크홀더로써의 모델이 생겨난 원칙만은 변하지 않고 그 원칙은 그대로 성립이 된다.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토론해 주신 세 분의 패널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온다던가 아니면 아시아퍼시픽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뵈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예슬) :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아이탄 안에서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어크레디트가 되어야 하는데 어플라이를 하셔도 되거든요.

특정한 직책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셔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ICANN 홈페이지에 가서서 참고하시면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멤버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